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vol.21 | 2018년 6월호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센터  
www.m-teacher.co.kr

함께 성장하는 스승 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 학교 내 '대안교실', 학생들을 학교로 끌어당겨요

※ 이 사례는 박현옥 서울 천왕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천왕중의 Wee클래스는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실의 구성원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각 학급 담임교사의 추천, 혹은 학기 초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서행동검사를 통해 선별돼, 학부모의 동의를 거친 후 화~목요일 5~7교시에 정규수업 대신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지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중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의욕과 흥미,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공예품 만들고 글씨 써보며 마음을 열어요

대안교실의 목표는 아이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젖어든 듯 조금씩 천천히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대안교실에서는 다양한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요.

학생들은 나무를 재료로 숟가락, 컵받침 등의 친숙한 생활용품을 톱질, 조각질을 하며 직접

만들어 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톱질에 힘이 부친 학생이 있으면 서로 돕고 협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후 사포질과 기름칠을 하는 과정까지 거쳐 작품이 완성되는데, 이때 느끼는 성취감이 큼니다. “이 수저로 진짜 밥 먹을 수 있어요?”하며 신기해하기도 하고, 반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더군요.

대안교실에서 진행되는 ‘캘리그래피’도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노래가사나 책의 구절, 힘을 주는 격언 등을 정해 와서 엽서지, 부채 등 다양한 재료에 붓으로 글씨를 씁니다. 좋아하는 글귀 한 자 한자에 감정을 실으며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력도 키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서먹했던 학생들이 각자 정해온 노래가사 등을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내성적인 학생들도 이 작은 교실에서 말문을 트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8명 내의 소인원으로 꾸러지기 때문에 교사의 세심한 관심, 그리고 칭찬과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해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평소 접하지 못했던 분야를 체험하면서 관련 진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학생이 있을 만큼 진로탐색의 기회도 열려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눈을 빛내며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때 대안교실의 필요성을 느낀답니다.

#### 문화 체험은 학교 밖에서도

5~7교시의 정규 프로그램 외에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문화체험도 있습니다. △연극 △뮤지컬 △난타 △전시회 등 여러 장르의 문화를 접해보고, 사격, 스케이트 같은 다양한 스포츠체험도 합니다. 문화체험이 끝나면 다함께 모여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년도 다르고, 낮을 가렸던 학생들이 서로 “언니” “오빠”하며 친밀해집니다. 학생들은 이런 문화체험을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보상의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 수업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도 있지요.

문화체험 시간에 찍은 사진과 대안교실 프로그램에서 완성된 작품들은 연말에 학교 1층 로비에 전시됩니다. 다들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하고, 본인의 결과물을 보고 뿌듯해합니다.

## 우리학교 연구모임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수업에 연극적 요소 활용하는 ‘DBI교육연구회’

## 수업 연구 고민…

## “국내외 교사들과 머리 맞대 해결해요”



DBI교육연구회가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는 모습. 고혁 경기 고양중 교사 제공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수업 연구다. 여러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 생각을 모으면 예상치도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힌트를 얻기 마련. 전국은 물론, 전 세계 여러 교사들과 수업 아이디어를 모으는 교사 연구회가 있다. 바로 교사 연구 모임인 ‘DBI교육연구회’가 그것. DBI는 ‘Drama Based Instruction’의 약자로 ‘드라마기반 표현활동’으로도 설명되는데, 주로 수업에 연극적 요소를 접목시켜 다채로운 활동을 하는 교육을 일컫는 말.

DBI교육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혁 경기 고양중 교사는 지난 2015년 초, 경기 파주에 있는 경기영어마을에서 진행된 교사연수 참여를 계기로 DBI교육연구회를 조직했다. 당시 해당 연수에 참여했던 4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뜻을 모은 것. 이후 해마다 4회씩 교사들과 오프라인 모임 및 워크숍을 갖는 한편 온라인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 DBI수업, 전 교과에 적용한다

DBI는 역할놀이, 즉흥극 같은 연극적 요소를 교과 수업에 활용하는 수업 방식으로, 전 교과에 적용 가능한 것이 장점. DBI에서 활용되는 ‘핫시팅(Hot Seating)’ 기법의 경우 한 학생이 의자에 앉아 다른 학생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는 것인데, 국어 수업에서 특정문학 작품을 공부하다가 한 학생이 직접 등장인물이 되어 의자에 앉은 뒤 다른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받으며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해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영어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미국 영화를 본 뒤 시나리오 형태로 활동을 재창작해봄으로써 문법을 고려한 영어 작문, 영어 말하기 연습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DBI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이런 방식의 DBI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회에 소속된 교사들과

끊임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한다.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DBI수업을 직접 시연하고 장·단점을 파악해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는 서로 수업 관련 자료를 주고 받으며 더 나은 수업지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교수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고받는다.

### 국제교류로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지난 2015년부터 연구회는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 외국어교육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미국 △칠레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교사들에게 DBI활동 과정 및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 우리나라 교사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외국에서 활용되는 것도 뿌듯하지만, 외국의 사례로부터 수업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많다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교사들이 ‘말라카제국의 건국’ 설화를 인형극 형태로 만들어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보고, 교사들은 “인형극도 수업에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기도 했다.

고령 경기 고양중 교사는 “DBI활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소통능력 △공감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면서 “이러한 DBI교육의 저변이 보다 넓어져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생각과 오감을 표현하며 인지적,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